

2021 3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적학과 특성화」
미래를 선도하는 정보전문가 양성 사업

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상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여 지역적 제한 범위 없이
이용자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명** LPfun

● **서비스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

● 기대효과

-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
-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폭이 넓어짐
- 이용자의 전반적인 도서관 활용도 및 이해도 향상

● 주요기능 및 상세화면 구성

- 정보검색 기능 (종합/상세)
- 필터링/재검색 기능
- 선호 주제 · 유형 분석 기능
- 이용자 맞춤 추천 기능 (선호 주제별, 관심도서관 신규 · 인기별)
- 주변도서관 자동설정 기능 (GPS)
- 알림 기능 (관심, 신청 프로그램 관련)
- 카테고리 편집 기능

LPf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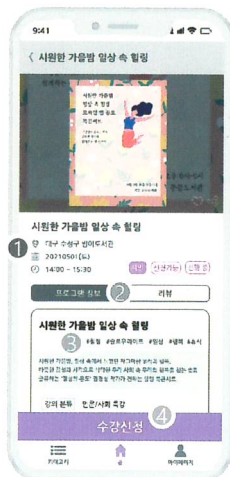


- 1 종합검색 (터치하면 상세검색화면으로 전환)
- 2 가입시 입력한 선호주제 반영하여 매일 다른 4개 프로그램 추천
- 3 실시간으로 인기있는 키워드 조회 (터치하여 즉시 검색가능)
- 4 분류 변경하며 최대 5개 프로그램 조회
- 5 이용도우미 챗봇 (드래그로 위치 변경 가능)



모든 항목들은 검색 중에 변경이 가능

- 1 유형별 검색결과를 좌측으로 넘기면서 조회
- 2 참여 가능 대상 - 화살표 통해 넘겨서 선택
- 3 숨김표시 된 주제를 펼쳐 복수 선택



- 1 프로그램 참여 위한 주요정보
- 2 창 전환하며 상세정보 / 리뷰 조회 가능
- 3 검색가능한 관련 해시태그
- 4 팝업창으로 필수정보 안내 ■ 확인 후 즉시 신청 가능



- 1 알람 설정 ON/OFF 기능
프로필 아이콘 눌러 개인정보 및 선호주제 변경가능
- 2 프로그램 참여횟수 + 리뷰 작성 횟수로 GOLD, SILVER, BRONZE등급 적용 (상위 등급일수록 리뷰 창 상단에서 공개)
- 3 도서관 근처에서 실행 시 해당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동 설정
- 4 1주간의 프로그램 관련 일정 넘기면서 조회
- 5 프로그램 참가이력 바탕의 취향분석 그래프

우수상

‘만개의 레시피’와 연계하여 다양한 음식의 레시피를 검색하고,
그에 따라 주문할 식재료를 즉시 매칭, 구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명** 뭉쳐야 판다
- **서비스 대상** 음식 레시피 참고와 해당 식재료 구매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이용자
- **검색항목** 요리명, 재료명, 요리 상황 · 종류 · 방법

● 기대효과

- 레시피 재료의 조사, 탐색에 소비되는 시간 절약
- 쉬워진 준비 과정으로 인해 새로운 요리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주요기능 및 상세화면 구성

- 정보검색 기능 (키워드/카테고리/아이콘/음성)
- 필터링 기능
- 타 앱 연동 기능
- 알림 기능 (소식받기)
- 장바구니 기능

쿡치야 판다



- ① 다양한 요리 레시피 ▪ 재료 검색
- ② 상황 ▪ 종류 ▪ 방법별 음식 메뉴 조회



- ① 음식 종류를 선택, 변경하여 조회
- ② 최신 ▪ 추천순으로 검색결과 정렬
- ③ 스크랩 ▪ 공유 ▪ 소식받기와 같은 이용자 서비스 제공



- ① 선택한 음식 레시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동영상 제공
- ② 요리에 사용되는 전체 재료의 양과 가격 정보 제공



가정내 식품 재고 고려 후 식재료의 전체적, 선택적 장바구니 담기
(담긴 식재료를 주문 → 결제 → 구매 가능)

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식품 알레르기로 편의점 음식 선택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알레르기 성분 포함 유무 안내와 관련 필터링을 지원하는 정보검색서비스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명** 알레르기 멈춰!
- **서비스 대상** 특정 알레르기 성분을 피해 편의점 음식을 구매하려는 이용자
- **검색항목** 편의점 브랜드, 상품명, 상품가격, 상품 내 알레르기 성분

● 기대효과

- 알레르기 성분 확인 과정이 간편화되며 식품 탐색에 소모하는 시간이 단축
- 알레르기 증상자의 편의점 식품 이용이 활발하게 변화

● 주요기능 및 상세화면 구성

- 정보검색 기능 (키워드/바코드)
- 필터링/재검색 기능

알레르기 멈춰



5개의 편의점 브랜드 중 이용할
편의점 브랜드를 선택
(선택된 편의점 브랜드는 **주황색**으로 표시)



20가지 이상의 주요 알레르기 성분 중
제한할 성분 선택
(선택된 알레르기 성분은 **주황색**으로 표시)



- 1 제품명과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
- 2 알레르기 필터에 포함 X - 회색
포함 O - **주황색**



- 1 결과 내 재검색
(먹고 싶은 식품이 안전식품 목록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음)
- 2 상품명 입력 ■ 바코드 스캔을 통한 검색

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명시된 식품영양정보를 구체적으로 검색, 조회하여 원하는 가공 식품의 구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 **서비스명** 마이 영양
- **서비스 대상** 영양성분을 고려하여 가공식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
- **검색항목** 가공식품 유형, 상품명, 상품가격, 제조판매회사명, 원재료, 영양성분명, 영양성분 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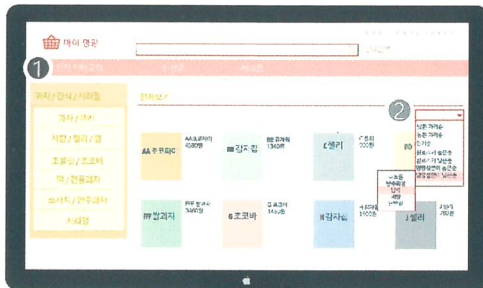
● 기대효과

- 희망하는 영양성분을 갖춘 가공 식품을 빠르게 탐색, 구매하는 것이 가능
- 우수한 영양성분으로 구성된 가공식품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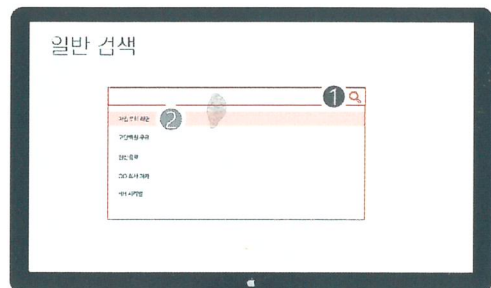
● 주요기능 및 상세화면 구성

- 정보검색 기능 (종합/상세/카테고리)
- 필터링/재검색 기능
- 유사제품 추천 기능
- 장바구니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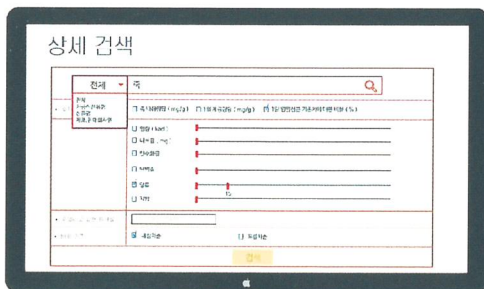
마이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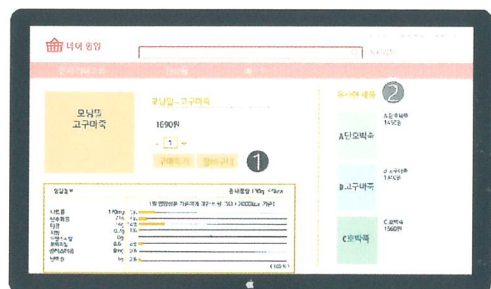
- ①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 가공식품을 조회
- ② 조회한 전체 가공식품을 필터로 재검색



- ① 가공식품에 대한 검색어 입력
(검색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가공식품 조회 가능)
- ② 최근 검색기록이 검색창 아래에 기재



식품 영양성분 함량, 원재료 등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상세검색



- ① 식품의 가격 · 상세영양정보 조회한 후 구매로 연계
- ② 유사한 가공식품 조회



최우수상 | LPfun - 권미성, 이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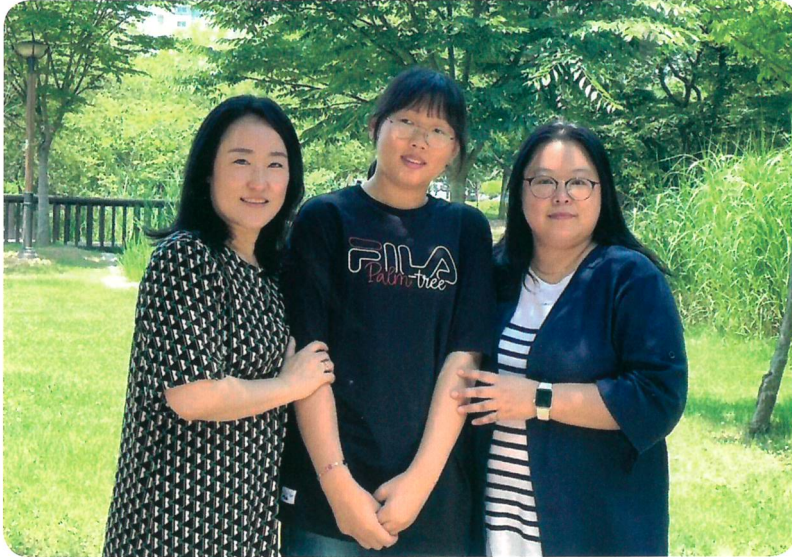
기존에 진행했던 공모전과 이번 공모전은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항상 일상의 일부였던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막상 이를 구상하고자하니 어려웠다.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앱'이라는 제작 목표는 명확했지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갖춰져야 적절할지 부터 고민의 연속이었다. 함께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조금씩 지쳐가던 찰나 권미성 팀장이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이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률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씩 틀을 잡을 수 있었고, 모호하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도서관 프로그램 통합지원 서비스 앱'의 계획을 진행하며 기존 도서관 프로그램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대부분 간략한 상세검색이나 주제 분류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웠다. 그렇기에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개선안을 작성하고, 이에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이라 판단되는 기능들과 디테일한 적용조건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후 디자인 단계로 넘어오면서, 최대한 잘 구현하고 싶은 욕심에 여러 방안들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이경민 팀원이 실제 앱 디자인에 사용되는 Adobe XD라는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팀원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앱 디자인 활용 경험은 없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지만, 앱 디자인 강의를 찾아보며 이어나갔다. 다행히도 우리 팀은 포토샵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복잡한 요소는 이를 활용했고, 점점 속도를 붙일 수 있었다.

막막한 시작이었지만 그만큼이나 화면 하나를 완성할 때의 성취감이 컸고, 끝에 이르러서는 열의에 차 앱의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우리가 완성한 앱이 휴대폰 화면 안에서 움직이자 너무나 행복했고, 'LPfun'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울컥하기까지 했던 것 같다. 도서관과 이용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노력했던 이 경험이 사서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에 좋은 바탕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후기

**우수상** | 뭉쳐야 판다 - 홍경하, 이민아, 박지수

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막막한 마음이 컸다. 또한 팀원들 간의 나이 차이도 많아 세대차이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앞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팀원들 간에 아이디어에 대한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차츰 흐릿하게만 느껴졌던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조금씩 구체화 되어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함께 고민하고 직접 구상해 볼 수 있었고,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작해서 제공하면 좋을지,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화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수상 | 알레르기 멈춰! - 김민정, 김은지, 김지현, 김지혜



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기존에 없는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안해야 한다는 말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생각한 적은 많았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고려하며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했다. 서비스를 제작하면서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제작자로서 이용자의 관점을 생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미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작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어려웠지만, 고민 끝에 틈새를 공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는 범위를 좁히되,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회의를 통해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가 없었고, 또 어떤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깊게 고민하여 주제를 선정했다. 회의를 하면서 각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인 구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공모전을 통해 서비스를 제작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와 서비스의 구성이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만큼 제작자가 이용자의 입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생소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혼자서 아닌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 나가는 과정에서 협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 감사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기획하고 적용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후기



우수상 | 마이영양 - 김용환, 박성경, 박원호, 황유진



정보서비스를 같이 제작하는 것은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다. 비록 처음에 아이디어를 짜는 것이 어려웠지만 인원수가 많다보니 금세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었다. 함께 어떤 새로운 검색서비스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일상 속에서 많이 검색하는 분야 중 전자상거래인 전자상거래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검색하지 못하는 부분’ 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평소 식품을 구매할 때 찾아보는 정보 중에 식품 영양정보가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하여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떠올랐다. 따라서 우리는 영양정보로 식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신에게 맞는 영양성분의 제품을 찾기 위한 목적의 검색서비스 ‘마이영양’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를 준비하면서 식품영양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제품은 검색되어도 당류 등이 %로 검색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쟁점으로 검색 가능한 영역을 넓혔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은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방향성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처음으로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었기에 서투른 부분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조장과 조원이 함께 검색 서비스의 다양성과 체계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를 도우며 점점 나아갈 수 있었다. 열심히 완성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순간에는 정말 떨렸지만, 이것이 더 좋은 결과로 보답 받게 되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식품정보에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잘 반영된 것 같아 뿌듯했다.

공모전 참여를 통해 평소 자연스럽게 무심코 사용해왔던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다양한 검색 기능들이 있는지,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들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유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소개합니다.



20세기의 대문호 보르헤스가 천국에 비유한 도서관은 삶의 가치를 찾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선물해 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는 1977년 전국에서 7번째로 설립되어 이제 전국 유일의 도서관학과로 도서관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정보의 생산과 보존까지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용자에

게 봉사하는 도서관·정보전문가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일반대학원에 기록관리학과 과정을 개설하여 기록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기록 전문요원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도서관, 어디까지 가봤니? 도서관 로드!

매해 국내 주요 도서관 및 기록원, 박물관 등 유관기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을 받아 1~2년마다 해외 도서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때 교수와 학생들이 촬영해온 사진들을 바탕으로 전국 도서관 대회, 국립중앙세종도서관, 범어도서관 등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서 사진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도서관 대회에도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해외 도서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10년 뉴욕·워싱턴 미국 동부 지역 도서관 견학
- '11년 캐나다 및 미국 서부 지역 도서관 견학
- '12년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도서관 견학
- '14년 중국 베이징 지역 도서관 견학
- '15년 호주 시드니·브리즈번지역 도서관 견학
- '16년 일본 후쿠오카 지역 도서관 견학
- '17년 미국 시카고 지역도서관 견학 및 미국 도서관 대회 참가
- '18년 체코 프라하 및 독일 드레스덴 지역 도서관 견학
- '20년 대만 강소대학교도서관 탐방

참스승 장학금으로 누리는 특별한 경험, 해외 인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학과 교수가 사비로 마련하는 장학기금에 학교 장학금을 더해 지급하는 '참스승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도서관학과에서는 이 장학금으로 해외(시카고 스코키 공공도서관)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다.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총 8명의 도서관학과 학생이 해외 도서관에서 실무 체험을 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해외 전문가까지 연결하는 인앤아웃 밀착형 교육

도서관 및 정보산업 현장의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및 동문을 학교로 초빙하여 교과 및 비교과과정과 결합하여 주제별 특강, 모의 면접, 진로 상담을 위한 간담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프로그램 기획,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학교도서관 및 지역도서관에 봉사 및 실습활동, 도서관 현장실습 등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앤아웃 현장밀착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 스코키 공공도서관 관장 및 시카고 대학 도서관 사서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특강을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역을 해외로까지 넓혀가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하는 도서관학과 전공 동아리

도서관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넘어서 사서·정보전문가의 길을 나아가는 선배와 후배로 만나 함께 하고 있다. 총 5개의 전공 동아리가 4명의 교수 지도 하에 지역 봉사 활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 매 학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슈퍼 사서를 꿈꾸는 '파피루스'
- 고서 및 기록물, 국가유산을 공부하는 '진품명품'
- 국내외 도서관 견학 동아리 '도파라치'
- 책으로 공유하는 세상, '슬기로운 독서생활'
- 팝송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Popuraian'

